

IN SEARCH OF PETRA GENETRIX

LECTURE PERFORMANCE, 30 MIN, 2020

김아영
AYOUNG KIM



페트라 제네트릭스를 찾아서 렉처 퍼포먼스, 30분, 2020¹

김아영

<다공성 계곡> 시리즈의 주인공 페트라 제네트릭스는 일련의 작업에서, 가상의 광물 덩어리이자 데이터 조각이며, 이주자의 신분이 된 신적 존재로 나타난다. 이 렉처 퍼포먼스에서 작가는, 국경, 젠더, 존재와 비존재, 시공간의 경계를 끊임없이 넘나드는 페트라의 기원을 추적하면서 페트라를 위한 가상의 신화를 만들어 나간다. ‘페트로제네시스’, 즉 바위로부터의 탄생이라는 개념을 통해 작가는 지구의 지층을 부유하는 사변적 이야기 속으로 관객을 끌어들이며, 그 과정에서 그가 몽골과 이란에서 역사가, 지질학자, 지역 주민들과 진행했던 인터뷰와 <다공성 계곡> 영상 시리즈의 파편을 운용하기도 한다. 더불어, 이 퍼포먼스의 중심에는 작가의 ‘목소리’가 있다. ‘누가 이야기하는가’라는 질문을 회피하기라도 하듯, 자신의 목소리를 여러 차례 변조함으로써 작가는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존재를 담지하게 되며, 본질적으로 다공적이고 모호한 개체일 수밖에 없는 페트라 제네트릭스의 픽션을 이어나간다. (이네즈 드 쿠, 2020)

¹
교정·교열 손영민

1. (버추얼) 렉처 퍼포먼스

<다공성 계곡> 연작의 외전 또는 스피너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프로젝트는 2019년 11월 베이징 롱마치 스페이스(Long March Space)에서의 기획전 <적자 팩션(Deficit Faction)>의 오프닝 퍼포먼스를 위해 처음 구체화되었다. 전시 오프닝에 참석하는 불특정 관객을 대상으로 이동형 롤링 스크린 앞에 앉아, 한 손에 유선 마이크를 들고 다른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보이스 트랜스포머와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번갈아 컨트롤하며 관객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제한된 상황에서의 간략한 시도였다. 그러나 몇 해 전부터 상상해 온 일의 실현이었고, 어떤 힘을 감지했으며, 이를 곧 정교한 작업으로 발전시켜야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IN SEARCH OF PETRA GENETRIX LECTURE PERFORMANCE, 30MIN, 2020¹

AYOUNG KIM

In her performance *In Search of Petra Genetrix* Ayoung Kim creates her own version of the story: a mythology connected to the fictional character of Petra Genetrix—the protagonist of her video series *Porosity Valley*. Through the notion of ‘Petrogenesis’—genesis from rocks—Ayoung Kim wanders through the Earth’s strata. She shows us footage she recorded in Mongolia and Iran interviewing an historian, a geologist, a geology museum director, and local inhabitants. Next to the interview fragments, Ayoung Kim embodies different entities by transforming her own voice. (Inez de Coo, 2020)

¹
Translated by Colin Mouat, proofread by Thomas West

1. (VIRTUAL) LECTURE PERFORMANCE

A spinoff from the *Porosity Valley* series, this project was first developed for the opening performance of *Deficit Faction*, a group exhibition at Beijing’s Long March Space in November 2019. It was a concise effort staged under constrained conditions for a random group of opening visitors; I sat in front of a portable rolling screen with a microphone in one hand, using the other to control alternately a tabletop voice transformer and a PowerPoint presentation. Yet it was the realization of something I had been imagining for a few years, and I detected in it a certain force which led me to the conviction that I should quickly develop the performance into a more elaborate effort.

It would acquire a more substantive framework as a January 2020 lecture performance—albeit an incomplete one—for a rather large audience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MMCA). (With the onset of the pandemic, all of this seems like something from the distant past.) The *Porosity Valley* series that I had begun in 2017 had followed its central figure, Petra Genetrix, through the agony and adventure of their migration, but I had long felt that I should try to draw out more of what Petra Genetrix meant to me, and all of the

이어 2020년 1월에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역시 미완이긴 했지만 꽤 많은 관객을 대면한 렉처 퍼포먼스로 조금 더 틀을 갖추게 되었다. (팬데믹 이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런 회상은 다소 아득하게 느껴진다.) 2017년 시작된 <다공성 계곡> 연작은 그 중심에 놓인 존재인 페트라 제네트릭스가 속한 세계의 일부만을 향해 열려 있으므로, 페트라 제네트릭스가 내게 주는 의미와, 그 존재를 형성하기 위해 모으고 담았던 많은 것들을 더 끌어내고 싶다고 오랫동안 생각했다. 이야기—페트라 제네트릭스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또 다른 존재가, 알 수 없는 여러 존재들의 목소리를 갈아입으며 들려주는 이야기. 말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더 이상 알 수 없게 되어버리는 합성적 이야기. 미완이었지만, 스스로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한 질료로 삼고 싶었던 오래된 바람을 그 두 이벤트를 통해 한 걸음씩 구체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20년 가을 네덜란드의 임팩트 페스티벌(IMPAKT Festival)을 위해 이 프로젝트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더 진전시킬 수 있었다. “제로 탄소발자국(Zero Footprint)”이라는 올해의 페스티벌 주제에 맞게, 그리고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따라, 교통수단을 거치는 물리적 이동을 최소화하고 거주 중인 지역에서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 송출하는 퍼포먼스를 페스티벌 측과 논의했다. 다만, 퍼포먼스 시간인 네덜란드의 10월 30일 저녁 9시는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였고, 그 시간에 촬영과 송출이 동시에 가능한 장소를 구하거나 스태프들을 밤샘 이벤트에 초청하는 일이 내키지 않았다.

여러 모색 끝에 이 작업은 서울의 한 스튜디오에서 그린스크린을 배경으로 렉처 퍼포먼스를 미리 진행하여 촬영한 후, 편집과 합성을 마친 영상을 유트레히트(Utrecht)의 임팩트 페스티벌 플랫폼에서 때맞춰 송출하는 버추얼 퍼포먼스의 형식을 띠게 되었다.

2. 합성성(SYNTHETICALITY)

이것은 렉처 퍼포먼스의 기록(documentation)이면서 합성물(product of synthesis)이다. 퍼포먼스의 촬영 배경인 그린스크린이 제거된 후 시시각각 변화하는 다른 이미지로 대체된다는 의미에서뿐 아니라, 발화하고 노래하는 목소리가 실시간으로 보이스 트랜스포머라는 장치를 거쳐 스피커를 통해 촬영 현장에 방출된 후, 재믹싱되었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은 스피커를 통해 방출된 본래 나의 목소리와 변조된 합성 목소리를 동시에 들었다. 그곳에서는 총 세 종류의

many things I had assembled and included to give it form. A story—not the story shared by Petra Genetrix, but a story told by different entities, trying on the voices of various unidentifiable beings. A synthetic story in which the nature of the speaking subject is in question. Though incomplete, the performances of November and January allowed me to take another step in realizing my long wish to use my own voice as the most important material in a work.

I was able to make even more progress with the project under a slightly different approach for the IMPAKT Festival in the Netherlands in autumn 2020. With this year's festival adopting the theme of “Zero Footprint,” and with an unprecedented pandemic under way, there were discussions (with the festival organizers) about having a performance streamed from our place of residence in order to minimize physical movement and the use of transportation. But the scheduled performance time of 9 pm on October 30 in the Netherlands translated into 4 am Korea time, and I was not inclined to look for a place that could do simultaneous filming and transmission at that hour or to invite technical staff for an all-night event.

After some consideration, it ended up being staged as a “virtual performance”: the lecture performance would take place in a Seoul studio and be filmed against a green screen, after which it would undergo editing and composite work to produce a video that would be broadcast at the IMPAKT Festival platform in Utrecht.

2. SYNTHETICALITY

This project is both a documentation of a lecture performance and a product of synthesis. This synthesis was both visual and auditory: the green-screen backdrop of the filmed performance was removed and replaced with ever-changing images; meanwhile, my singing and speaking voice underwent voice-transformer alteration in real time. The output of the voice-transformer was relayed over speakers to the set, along with my unaltered voice. In all, we recorded three versions of the vocal take: i. my ‘original’ unaltered voice; ii. the ‘pure’ output of the voice transformer; iii. the combination of the foregoing with the ambient sound of the room: a synthetic voice.

I have long been interested in synthesis. I have sometimes referred to the stories I create as “synthetic stories”—although all forms of story possess an intrinsically synthetic nature.

목소리가 녹음되었다: 1) 본래의 목소리 2) 스피커를 통과하고 앰비언스와 결합한 합성 목소리 3) 스피커를 거치지 않아 앰비언스 없이 바로 입력된 '순수한' 합성 목소리가 그것이다.

합성에 관심 가진 지는 오래되었다. 나는 때때로 내가 만들어 내는 이야기들을—모든 종류의 이야기가 지닌 합성적 성격은 곧 이야기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합성 이야기라고 부른 적도 있다. 실시간 목소리 합성 기술은 변신과 둔갑의 의미에 더해 신체적 특질의 확장으로, 기능 향상의 의미로 작동하기도 해서, 마치 가면을 쓰듯 발화자가 본래 지니지 못했던 힘을 갖게 된 것 같은 기분을 불러일으킨다. 변화하는 다양한 이펙트의 실시간 믹싱으로 목소리가 예기치 못했던 방식으로까지 합성될 수 있음을 더듬어 경험한 일은 이 작업을 준비하며 가장 두근거렸던 순간이었다. 합성된 목소리는 약한 신체에 덧씌워진 갑피 같았다.

3. 불변성과 가소성, 단단함과 변화무쌍함

<다공성 계곡> 연작을 지속하는 동안 페트라 제네트릭스라는 존재를 형성하기 위해 모으고 쌓은 여러 가지 조사와 생각 중에는 SF나 사변소설(speculative fiction)의 영향이 짙게 밴, 그것이 집단적으로 사고하는 지성체라는 아이디어뿐 아니라, 아마도 페트라 제네트릭스의 성질 중 가장 근본에 놓여 있을 광물성에 대한 것이 있었다. 이를테면, 매우 인공적으로 보이는 페트라 제네트릭스의 정육면 결정들은 실제하는 황철석의 자연발생적 형태 그 자체이다. 2014년 이란을 방문하여 진행했던 미트라교—고대 페르시아에서 발생하여 이후 고대 로마와 유라시아 지역으로 전파된 종교—에 관한 조사와 2019년 초에 몽골에서 조사할 기회가 있었던 "어머니 바위" 신앙 또한 이러한 광물성 개념을 구축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조사 자료를 합성해 가며 알게 된 것은, 아주 많은 문명권의 사람들이 광물에 지모(Terra Mater)의 신성성이 깃들어 있고 광물이 살아 있다고 믿어왔다는 점이다. 다만, 문명권 사이 믿음의 관점에 다소간의 차이와 모순점이 존재했다.

고대 로마에서 미트라신을 섬기던 사람들은, 바위가 미트라를—물리적으로—낳았다고 생각했다. 그 태어남과 생성이 곧 페트라 제네트릭스라는 관념 자체이며, 이 용어는 신을 낳은 바위/모암(matrix²)을 의미하기도 한다. 로마인들에게 바위는 신을

Beyond its sense of transformation and alteration, to transform the voice in real time creates a sense of functional enhancement and expansion of physical properties; as though wearing a mask, the speaker comes to sense that they possess some power they did not have before. The most exciting moments for me in preparing this project were my experiences sensing how the voice could be synthesized in unexpected ways through real-time mixing with different changing effects. The synthetic voice was like a coat of armor over a frail body.

3. IMMUTABILITY AND PLASTICITY, SOLIDITY AND CHANGEABILITY

The research and ideas that I assembled to develop the character of Petra Genetrix during my work on the *Porosity Valley* series came from diverse sources, some of it concerned not just with the idea of a collectively thinking intelligence (which smacks strongly of sci-fi or speculative fiction influences), but also the minerality that may represent Petra's most basic quality. The cubic crystals that make up Petra Genetrix's highly artificial-looking form are in fact naturally occurring pyrite shapes. This minerality bore connections with my field research on Mithraism (a religion that emerged in ancient Persia and spread from there to ancient Rome and across Eurasia) in Iran, which I visited in 2014, as well as the "Mother Rock" faith that I had the opportunity to research in Mongolia in early 2019.

What I learned as I synthesized my research findings was that people in a great many civilizations have believed minerals to be "alive," with the divinity of Terra Mater (Mother Earth) imbued within them. At the same time, their perspectives on this belief have led to differences and conflicts between civilizations.

In ancient Rome, worshippers believed that Mithra was—literally—born from rock. That birth and genesis are the very idea behind Petra Genetrix, whose name derives from the term signifying the rock from which a deity is born. The mineral as the matrix in which the divine was embedded. To Romans, rock was plastic and flexible enough a medium that it was capable of giving birth to gods. In contrast, the Mongolians of today and the past venerate stones and rocks as the living body of a "Mother," but the reason for their sacredness has to do with their permanence and firmness, and the fact that they are substances that have existed since the earth's emergence. Where the origins of rock's "life" lay in its plasticity for ancient Romans, the Mongolians found them in its immutability. I was at

페트라 제네트릭스를 찾아서

²
"지질학에서 '매트릭스'는 결정, 화석, 자갈, 헐관 등이 박혀 있는 자연 광물을 의미하거나, 또는 바위 구성에서 보다 큰 입자의 광물을

출산할 만큼 가소적이며 유연한 미디어였다. 반면, 예나 지금이나 몽골인들은 돌과 바위를 어머니라는 살아 있는 신체로 추앙하지만, 그것이 신성한 이유는 지구의 탄생과 함께 존재해 온 물질이며 영속적이고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다. 고대 로마에서 바위의 가소성이 그 살아 있음의 근원이었다면, 몽골에서는 바위의 불변성이 그 살아 있음의 근원이다. 언뜻 상충되어 보이는 부동성과 유동성 사이의 진자 운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했다. 왜 그것의 생명력은 단단함과 변화무쌍함 모두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불변성과 가소성은 왜 공존하고 있나.

그리고 어느 날 그 질문은 의외로 쉽게 해결되었다. 우리는 지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지구 최초의 육지 덩어리인 판게아 대륙이, 까마득한 세월 동안 천천히 움직여 현재의 5대양 6대주를 형성했음을 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움직이는 지각판 위에서 모든 존재는 항구적으로 아주 중이다. 인간의 한갓된 시간 감각을 초월하여 아주 느리게, 하지만 끈질기게, 한순간의 휴지도 없이 어딘가를 향해 움직이면서 무언가를 형성하거나 해체해 가는 땅과 바위와 돌들은, 인간으로서 그 경향과 도달점을 파악할 수조차 없는 불가해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 너무 더뎌 인간의 지각으로는 불변으로만 인식될 뿐이나, 수십 세대가 흐른 뒤 어느덧 이전과는 다른 곡선을 그리게 된 강 하구의 모양이라든가, 없었다가 생겨난 우각호들, 점점 깎여 밀려나 마침내는 사라지고 마는 폭포, 협곡과 단층이 존재한다. 돌이 된 마그마와 다시 마그마가 된 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담고 흐르는 지각판들. 행성적 시간이 불러일으키는 참을 수 없는 심원함.

땅과 바위와 돌의 신성은 차라리 이 시간성의 간극에서 비롯하는 것일 터였다. 그래서 바위의 가소성과 불변성은 상이함보다는 상호 의존적인 개념일 것이었다. 가능하는 시간의 크기를 얼마만큼 벌리고 오므릴지의 차이일 뿐이었다.

다음은 렉처 퍼포먼스에 인용하기도 했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말이다.

“광물은 이주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마그마에서 대부분의 광물이 비롯되는데, 바로 식어서 광물이 되기도 하고, 물에 융해되어 지층 틈을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내리고 싶은 곳, 화학적, 물리적 조건이 좋은 곳에 내립니다. 그곳에서 정출하고, 배태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풍화되고, 쓸려 내려가고, 퇴적이 되면 그곳이 광상이 될

둘러싸고 있는 고운 입자의 물질을 의미한다.
[사암의 경우 미사(微砂)나 진흙 입자, 결정질 암석의 경우 미세 결정체 등] 이는 종종 기질(基質, groundmass)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The Editors of Encyclopaedia Britannica, “Matrix,” *Encyclopædia Britannica Online*, Encyclopædia Britannica, inc., 2011,
“<https://www.britannica.com/science/matrix-geology>” (최종 접속일: 2020. 12. 5.)

∞

페트라 제네트릭스를 찾아서

a loss as to how to understand this pendulum swing between two ostensibly conflicting aspects. Why should rock's vitality stem from both its solidity and its changeability? Why does immutability coexist with plasticity?

One day, that question was solved with surprising ease. We know that Pangaea, the initial supercontinent described by geology, underwent a gradual movement long ago to form the five seas and six continents we know today. As we speak, all things are in a process of permanent migration atop moving tectonic plates. For us human beings, the earth and rocks and stones exist under a veil of inscrutability whose tendencies and destinations we cannot hope to fathom, transcending our limited sense of time as they move, tremendously slow but tenacious, never resting for a second as they proceed forward, creating and destroying things as they go. They are merely perceived as unchanging because our human senses are too dulled. We see the shapes of river estuaries, their curves altered over the passage of dozens of generations; we see oxbow lakes where none existed before; we see cascades, valleys, and faults, whittled down gradually until they finally disappear. Magma becomes stone, which melts once again into magma, all of this taking place on drifting tectonic plates. Planetary time evokes an unbearable profundity.

If anything, the divinity of earth, rock, and stone may have emerged from the gaps within this temporality. In this sense, the plasticity and immutability of rock might be interdependent rather than conflicting concepts. It was merely a matter of difference in the degree to which the scale of measured time was expanded or shrunk.

A quote from a researcher affiliated with the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also deployed in the lecture performance):

Minerals are created through migration. Most minerals come from magma. Sometimes it cools to form minerals directly. Sometimes it dissolves in water, floating among the cracks in the earth's layers and settling wherever it wants – wherever the chemical and physical conditions are right. There it becomes crystallized, and sometimes germinates. As it undergoes weathering or becomes swept away to become sediment, that can turn into deposits. After it completes its cycle and returns to the Earth, it becomes magma again. It's a cycle that repeats itself. We analyze the

수 있고, 그러다가 한 주기를 돌아서 땅속으로 가면 다시 마그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주기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광물이 좋아하는 층을 분석합니다.”

4. 바위에서 태어난 신의 퀘어함, 또는 퀘어한 바위

그러나, 이 프로젝트에 한해 광물에 관한 모든 관심의 출발은 사실 미트라의 탄생 신화와, 그리고 비등하면서도 변화무쌍하게 확산해 간 미트라의 도상으로 수렴된다고도 할 수 있다. 애초에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대부분 남성형으로 표현된 미트라 도상이 드물게 여성형으로 구현된 경우가 있다는 파르딘 저메이디 박사의 2014년 인터뷰 내용이었다.

“유럽에서의 미트라는 남성의 형상이었습니다. 이란의 미트라는 형상이 없었습니다. 본래의 미트라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의 빛, 새벽녘의 여명입니다. [...] 이 로마의 조각에서 미트라는 남성의 형상이지만 다음 이미지에서는 미트라가 여성의 형상입니다. [...] 미트라는 형상이 없기 때문에, 미트라를 믿는 종교인들이 믿음과 맥락에 따라 형상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로마인은 로마인들대로, 이집트인은 이집트인들대로 형상화하는 것입니다.”³

〈다공성 계곡〉 연작에서 주인공 페트라 제네트릭스는 젠더와 규정적 형체가 없는, 또는 끊임없이 유동하는 신체를 지닌 무성의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 저메이디 박사의 구술과, 페트라 제네트릭스의 근원인 미트라 신앙, 나아가 고대 중동의 신들의 성별 개념에 대해 서술한 이란 태생 철학자 레자 네가레스타의 다음 글은 강하게 공명한다.

“‘젠더에 대한 갈등은 신인동형론적인 어리석은 기획이다. 중동의 신들로 구성된 모호한 군단은 심연의 지혜의 깊이를 재기 위한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젠더를 모호하게 한다. 이 심연의 지혜는 피조물과 창조주를 모두에 해당하는 비결단성이다.’라고, 파사니는 『미트라교에 관하여(On Mithraism)』에서 적고 있다.”⁴

이는 『사이클로노피디아: 익명의 물질들과의 공모』에서 저자 레자 네가레스타니가 작중 인물인 파사니의 펜을 빌려 서술한 내용이다. 미트라의 존재—나아가, 중동에서 기원한 신들의 존재—는 젠더 개념의 모호함을 내면화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 모호함은 그들의 초월적

strata that minerals “like.”

4. “QUEER ROCK” AND THE QUEERNESS OF A GOD BORN FROM ROCK

But for this particular project, the starting point for my interest in minerals was certainly the myth of Mithra's birth. Another point of departure: the icons of Mithra that spread across the ancient world in forms both similar and endlessly varied. What captured my attention early on was a 2014 interview with Dr. Fardin Jameydi, who said that while figures of Mithra typically showed a male form, there were also rare instances of representation in female form.

In Europe, Mithra retains a masculine imagery. In Iran, there is no imagery of Mithra. Mithra was originally understood as the rays of the rising sun, and the glimmer of dawn. [...] From this Roman sculpture, we see a masculine imagery of Mithra, but in the next image, we see a feminine one [...] Precisely because Mithra has no imagery, its religious believers created their own representations depending on their beliefs and contexts. A Roman one by the Romans, and an Egyptian one by the Egyptians.²

² Ayoung Kim and Fardin Jameydi, “Interview with Dr. Fardin Jameydi,” [conducted on Aug 4, 2014]

페트라 제네트릭스를 찾아서

³
김아영, 파르딘 저메이디,
“파르딘 저메이디 박사와의 인터뷰”,
2014. 8. 4.

⁴
Reza Negarestani,
Cyclonopedia: Complicity with Anonymous Materials,
Melbourne: re.press, 2008, p. 169.

‘The conflict between genders is an anthropomorphic folly. The obscure legion of Middle-Eastern gods confuse their gender in the most extreme way to fathom their abysmal wisdom which is irresolute in regard both to creatures and to other creators,’ writes Parsani in *On Mithraism*³

This passage is from *Cyclonopedia: Complicity with Anonymous Materials*; in it Reza Negarestani speaks through the voice of his fictional character, Hamid Parsani. My choice of ‘Petra Genetrix’ as a name for the protagonist of my project, and for the invocation of Mithraism, was not solely due to Mithra's success in migration. The presence of this god—and all the other gods originating from the Middle East—embodies ambiguous gender, an ambiguity which amplifies their transcendental profundity.

³ Reza Negarestani, *Cyclonopedia: Complicity with Anonymous Materials*, Melbourne: re.press. 2008, p. 169.

심원함을 배가시키고 있다는 전언이다. 페트라 제네트릭스라는 명칭과 존재는, 내가 이야기 속에 담고 싶었던 것을 많은 것들—광물, 이주의 주체, 무성, 신적 형상 등—을 함의하기에 더없이 적절했다. 신인동형론을 초월하여 심연의 지혜를 더욱 심원하고 깊게 만드는 극단적인 장치로서의 젠더의 모호함. 여러 경계를 너머 끊임없이 이주, 혹은 이행해 가는 주체.

5. 미디어-목소리, 미디어-광물

태초의 미디어로서 돌과 바위를 바라보는 일은 낯설지 않다. 바위 동굴의 어두운 벽면에 오래 가는 안료로 형상화된 들소 떼와 사슴들이 남아 있다. 기억 담지체로서의 광물을 생각하자면, 무언가가 퇴적하거나 굳어져 만들어진 존재인 돌은 지구의 기억을 간직한 미디어이기도 하다. 돌과 바위는 읽히고 해석된다.

많은 토착 문화에서, 후대에 전달하기 위한 정보를 담은 노래가 구전으로 발견된다. 광활한 한 지역의 지리와 자연 경관을 통째로 담을 수 있다는, 마치 청각적 지도와 같은 노래 형식인 호주 원주민의 송라인(songline)이 그렇다. 호주의 땅 전체를 하나의 긴긴 노래로 옮길 수도 있다. 바위, 나무, 언덕과 같은 자연의 모든 랜드마크가 노래 안에 저장된다. 마치 메모리스틱과도 같다. 노래하는 자가 걸어 다니면서 눈앞에 펼쳐진 공간에 노래의 기억을 투영할 수 있으므로, 어쩌면 AR 지도 같기도 하다.

파푸아뉴기니 지역 트로브리안드 군도의 한 부족사회에는 집을 짓고 땅을 정비하고, 카누를 제작하는 방법이나 수확한 양을 창고에 저장하는 순서를 담은 노래가 제의적 챔팅으로 전해 내려온다고 한다⁵.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를 소리내어 합창하며 매년 수행해야 하는 일거리를 익히고 되새길 수 있었다. 이는 풍요를 기원하는 주술임과 동시에 매우 실용적인 교과서였다.

목소리와 멜로디/선율, 또는 리듬/운율이 합쳐진 “노래”는 정교화된 시스템이자 기억을 저장하는 미디어, 기억 담지체로 기능한다. 하나의 문장은 쉽게 잊힐 수 있지만 선율이나 운율과 결합한 문장은 더 오래 지속된다. 모든 매체가 기억에 관한 것이라면, 노래하는 목소리는 매체로서 오래 지속될 기억을 매개한다.

짧지 않은 시간동안 행했던 과거 프로젝트들에서 다양한 퍼포머들을 통해 목소리를 사용하는 여러 기술을 시도했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This is why I found the term “Petra Genetrix” particularly effective in summarizing various aspects of my story: the mineral, the subject of migration, the asexual, the non-human, and the imagery of the divine, among other things. Gender ambiguity, a radical device, makes abysmal wisdom more profound, transcending anthropomorphism—a subject of ceaseless migrations or transpositions, crossing multiple borders.

5. MEDIA-VOICES, MEDIA-MINERALS

23

It is not so uncommon to view stones and rocks as the original media. On the darkened walls of rock caverns, herds of buffalo and deer remain in likenesses rendered through durable paints. We may also consider minerals as receptacles of memory, with stones serving as media to capture the earth's recollections as they are formed through sedimentation and hardening. Stones and rocks are read and interpreted.

페트라 제네트릭스를 찾아서

In many aboriginal cultures, songs bearing information to be passed on to posterity can be found in the oral tradition. An example is the songline, a style of singing among Australia's aboriginal peoples. Like an auditory map, the songline is capable of fully capturing the geography and natural landscape of a vast region. The entirety of Australia's territory can be transported into one long work of song. Stored with it are all the landmarks of nature – its rocks, trees, and hills. It is like a memory stick in some ways. In others, it resembles an augmented reality map, where the singer is able to project the song's memories onto the space in front of us as they walk around. In the case of one tribal society in the Trobriand Islands of Papua New Guinea, songs that describe the proper sequence for building a house and maintaining land, constructing canoes, and storing harvested yams are said to survive in the form of ritualistic chanting.⁴ As they recite these songs in unison, community members are able to learn or recall the tasks that are to be completed each year. In addition to being an incantation to pray for abundance, they form also a highly practical textbook.

As a combination of voice, melody, and rhythm, the song functions as an elaborate system and a medium for storing memory: a mnemonic device, in other words. It is easy to forget a written sentence, but a sentence combined with melody and rhythm lasts longer. All media are forms of memory; the singing voice, despite its temporal limitations, can be the agent of transmission of memories far less impermanent.

⁴ Tambiah, Stanley Jeyaraja, ‘The Magical Power of Words’, in *Culture, Thought, and Social Action: An Anthropological Perspectiv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

나도 그 대열 속에 합류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다. 이 프로젝트에서 내가 시도한 것은 다양한 화자의 말과 소리들, 근본 없는 슈프레히게장⁶ 혹은 레치타티보, 그리고 코러스와 딜레이, 하모니,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수많은 이펙트가 혼합되어 적용된 노래와 노래 아닌 것들이다. 그것이 실어 나르는 것은 점프하고 오가는 이야기들, 돌과 땅과 바위와 경계와 젠더에 대한 왕복하는 개념들이다. 들리는 것은 나의 목소리이며 나의 목소리가 아니다.

6. 말, 이야기, 발화, 노래

하고 싶은 말과 이야기가 너무 많았다. 팬데믹이라는 상황은 이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떠들고 싶었으며 여전히 그렇다. 아직 말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다.

선명한 경계를 만들어 내는 땅과 바다는, 지각판 자체가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으므로 영원히 이주하는 주체이다. 페트라 제네트릭스에게 부여된 비규정성과 모호함, 즉 다공성은 그것의 이주와 이행에서 필수적인 듯 보인다. 페트라가 가로지르는 것은 단지 국경과 경계, 지층 사이만이 아니다. 영원히 떠돌고 배회하도록 운명 지워진 그것은 견고하면서 유동적인 것, 불변하면서 가소적인 것, 단단하면서 변화무쌍한 것의 간극을 왕복하고, 규정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젠더 관념을 무화하며, 인정 또는 구제라는 관념을 조소할 것이다.

<페트라 제네트릭스를 찾아서>라고 이름 붙인 이 프로젝트에서 나는 이야기의 합성, 목소리의 합성이라는 방식을 통해 페트라 제네트릭스도 찾고, 나 자신도 찾는다. 내가 가져본 적 없는 목소리와 말들을 통해, 그 발화에서 나타나는 주술적 힘을 통해. 약한 신체에 덧씌워진 갑피를 통해.

6
독일어로 '이야기하는 노래'라는 뜻으로, 성악의 특수한 발성법. 말과 노래의 중간쯤 되는 성악의 특수한 발성법으로, 음악적 낭독에 비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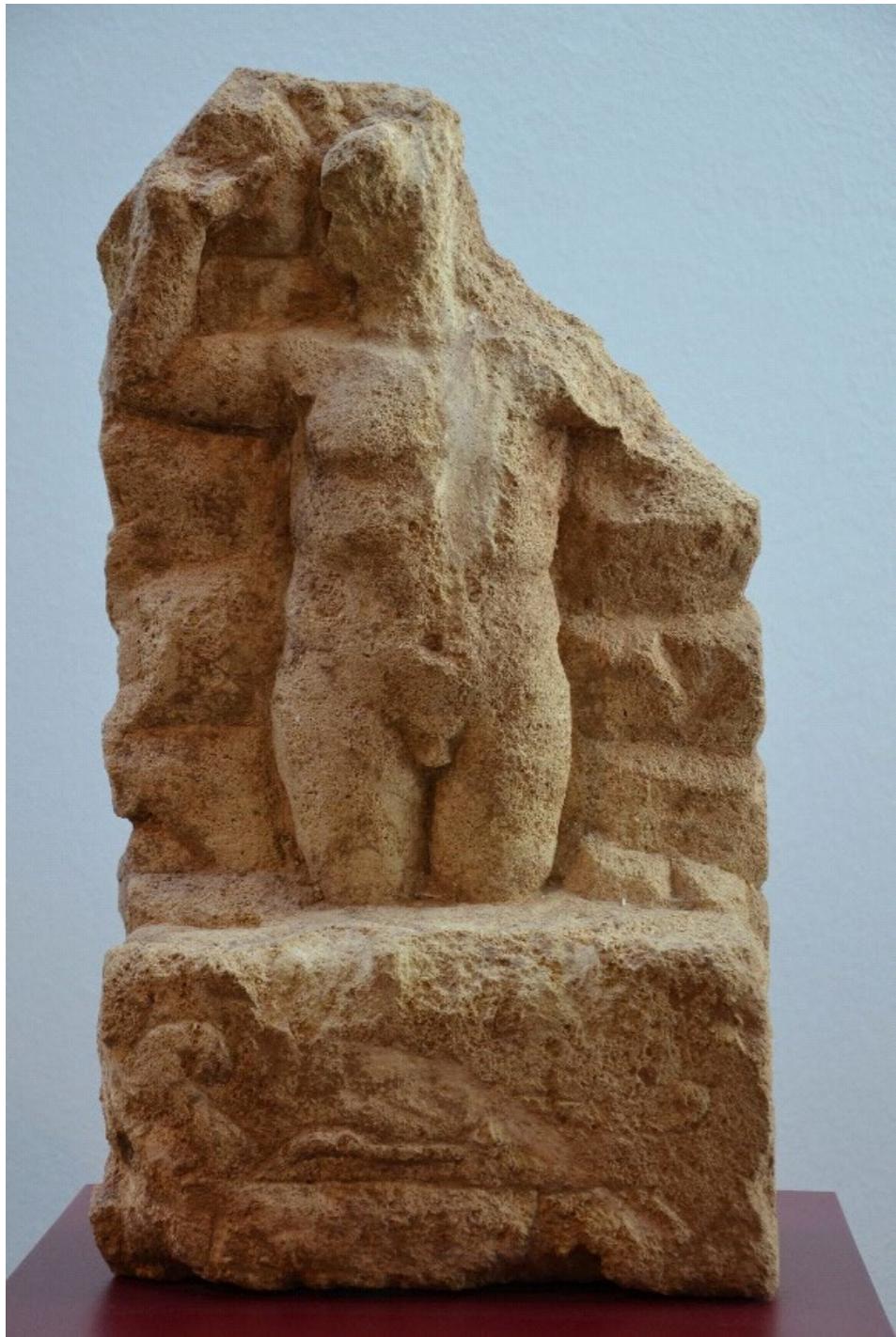
In past projects that were carried out over a considerable length of time, I tried out different techniques for using voices with different performers. Somewhere along the way, I found myself wanting to join them myself. What I attempted with this project was a mixture of songs and non-songs applying a mixture of words and sounds from different speakers, rootless Sprechgesang and recitativo, choruses, delays, harmonies, and numerous other effects whose names I cannot recall. These are used to carry stories that jump back and forth, concepts on a round-trip journey with regard to stone and earth and rock and boundaries and gender. The voice you hear is mine and yet not mine.

6. SPEECH, STORYTELLING, UTTERANCE, AND SONG

I had many things to express and stories to tell. This was only accelerated further by the pandemic. I wanted to utter; I still do. There are so many things I have not yet been able to say.

The land and seas that form such clear boundaries are agents in eternal motion due to the ceaseless movements of the tectonic plates themselves. The indeterminacy and ambiguity attributed to Petra Genetrix—their porosity, in other words—appears to be essential for their migration and transition. Petra is not simply moving across national borders, boundaries, and strata. Their destiny to roam forever is a round-trip journey over the gap between the rigid and fluid, the changeless and plastic, the firm and mutable; it will nullify indefinable and unnecessary gender concepts, mocking the idea of recognition or salvation.

With this project titled *In Search of Petra Genetrix*, I am using the synthesis of story and voice as a method to search for Petra Genetrix and search for myself—through a voice and words that have never been mine, through the incantatory power that arises from their utterances, through the armor they place over my frail body.



미트라의 탄생을 묘사한 석회암 부조, 2세기 후반, 라이니솁스 란데스뮤지움 트리에, 독일, 캐롤 라다토 촬영. (Creative Commons)



Limestone relief depicting the birth of Mithras, 2nd half of the 2nd century AD, Rheinisches Landesmuseum Trier, Germany, photographed by Carole Raddato from Frankfurt, Germany. (Creative Commons)

16

페트라 제네트릭스를 찾아서

17

IN SEARCH OF PETRA GENETRIX

IN SEARCH OF PETRAGENETRIX

2020



its inevitability and entrenched beliefs,



Most minerals come from mag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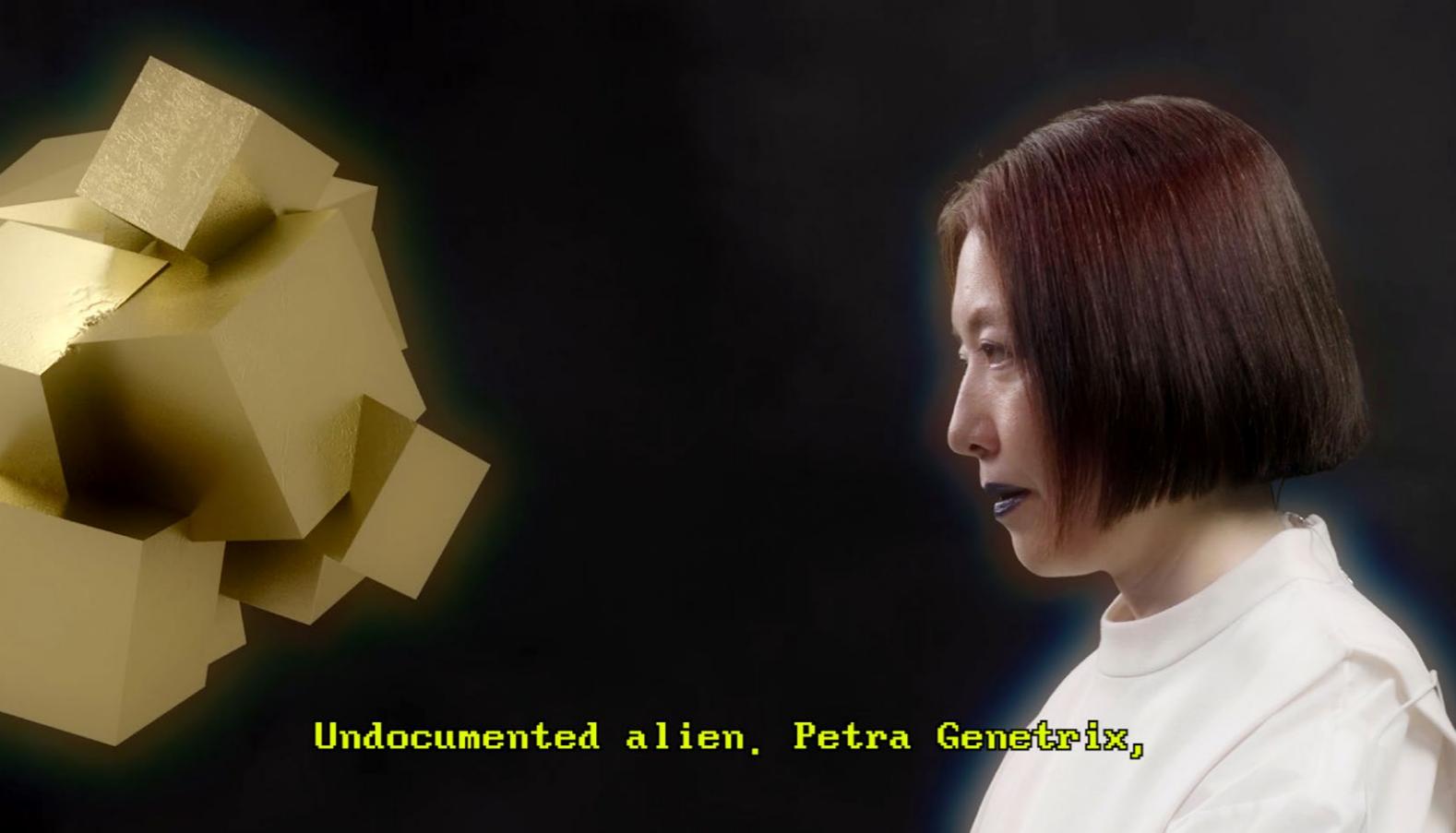


clouds entangle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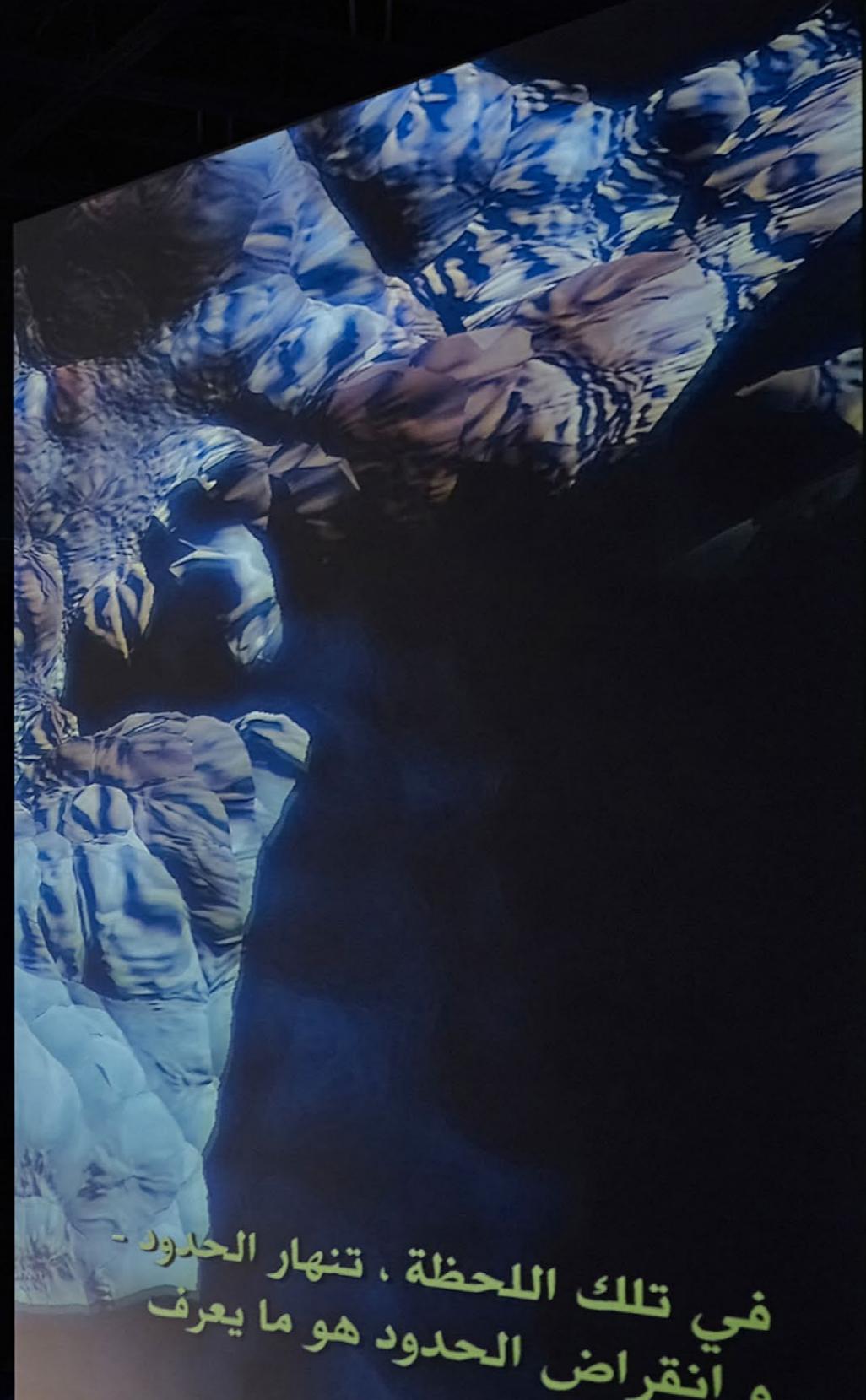
travelling along optical fiber cables







حل سريع وحالى من المشاكل
لبدأوا حياتكم الجديدة بثقة



في تلك اللحظة ، تنهار الحدود
وأنقراض الحدود هو ما يعرف
التغيير .

